

보성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이번 행사 개최

코로나19 예방 위해 안전 캠페인 병행

보성군 군민문화운동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위원 30여명은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 상품권'을 구매해 물건을 사면서 지역 소비활동을 진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이번 장보기 행사는 안전의식 확산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면서 면역력 증진에 좋은 녹차와 면 마스크, 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손 소독제 등 무료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거듭 강조하며 전통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큰 호

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도 참여한 주민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생 살피기에 나섰다. 김 군수는 "이번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군민문화운동을 더 열심히 추진해 군민을 하나로 뽕뽕 뭉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나눔은 보성군 군민문화운동 운영위원회로 활동 중인 보성교동 박재순 대표와 백록다원 백종우 대표가 각각 250여만 원의 면 마스크와 녹차를 기부하며 군민이 주도하는 청정·친절 보성군 군민문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주)백록 운영기 대표는 손 소독제에 필요한 재료



를 제공하여 손소독제 만들기에도 동참하였으며, 백연골 발효차 문정자 대표 역시 오감꽃차를 기부하며 훈훈한 기부 물결에 뜻을 더했다.

한편, 보성군 군민문화운동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위해 지난 2월 14일부

터 물품 기부 릴레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릴레이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친절한 보성 만들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올해부터 시민 안전보험 시행

보험료 전액 부담

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2월 11일부터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등의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발생지 역이나 다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다.

보험 보장 항목은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박영수 안전총괄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시민이 보험역이나 다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다. 보험 보장 항목은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곡성 섬진강 구간, 붉게 물든 철쭉으로 장관 이뤄



푸른 섬진강이 붉게 물들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12km의 섬진강 중 전남 곡성군 구간, 섬진강

이 아니라 섬진강변 17번 국도가 빨갛게 물들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전남 여수

시 돌산읍 울림마을까지 내달리는 17번 국도는 416km의 긴 여정 동안 수많은 풍경을 선사한다. 그 중에서도 섬진강과 함께 달리는 전남 곡성 구간은 역사가 숨겨져 있는 여행자들에게 꽤나 익숙한 곳이다. 특히 반가웠던 봄도 어느새 지루해질 4월 말이면 곡성의 섬진강 길은 다시 한번 뜨거워진다.

이 시기 17번 국도 곡성 구간은 낮게 흐르는 푸르른 섬진강 물결과 갈매빛 작은 산 위에 점묘화처럼 뿌려진 신록이 이채롭다. 그리고 그 사이로 15만분의 붉은 철쭉이 주단처럼 피어난다. 흔하디 흔한 철쭉이다. 하지만 봄빛이 일렁이는 섬진강과 생명력을 한껏 머

금은 산을 따라 유연하게 휘어져 돌아가는 철쭉의 붉은 물결은 일상으로 침잠하던 정신을 번득게 준다.

농밀한 붉은 색에 눈이 먼져 아파온다. 아담 속에 잠겨 있던 두 눈에 갑자기 빛이 쏟아지는 느낌이다. 붉은 돌이 꽃잎의 갈면에만 살짝 칠해진 것이 아니라 꽃잎 속에서부터 짙게 배어나온 듯하다.

어느새 자동차들은 속도를 늦추고 차창을 내린다. 그것도 아슬운지 일부는 갓길에 멈춰선다. 모든 꽃이 그러하듯이 누가 보라고 피어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도취된다. 철쭉꽃물이 발갛게 뺨에 비치면 흥조가 된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들의 몸짓 하나 눈짓 하나는 노래가 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튜립 알뿌리 나눔 행사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최근 동문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부스를 이용해 '튜립알뿌리 희망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튜립알뿌리 희망나눔' 행사는 드라이브 스루(Driving Through) 방식과 워킹스루(Walking Through) 방식을 병행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행사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길게 줄지어 서있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

의 높은 의식 수준을 보여줬다.

이번 나눔 행사에 쓰인 튜립 알뿌리는 순천만국가정원에 식재되어 있다가 개화기가 끝나고 캐낸 것으로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매년 시민들에게 분양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드라이브 스루(Driving Through)와 워킹스루(Walking Through)방식을 도입했다.

튜립 구근을 분양받은 시민들은 "튜립 알뿌리를 심으며 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이 풀릴 것 같다"며 "잘 심어 내년엔 예쁜 튜립꽃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에 나누는 튜립 알뿌리가 순천의 거리와 가정마다 피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정원 도시의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 당부해

화순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 추진현황과 실행, 사업 방식 등을 꼼꼼히 살피고 주의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건수는 94건(총 세대수 6만4015세대)으로 지난 2010년 7건(3697세대)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총 세대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에는 지

역주택조합 설립이 104건(6만9150세대)이 승인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건수도 2010년 5곳에서 2017년 36곳으로 늘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다.

군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일정 자격만 갖추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사업 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급증한 이유로 꼽는다.

화순=박순철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 일 남

범 상 다

한 속 른

여 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